

## 〈‘통계로 본 노동 20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1987년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이후 20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맞이하여 노동 분야에서 현재적인 문제의 진단 및 미래 전망을 모색하고자 『통계로 본 노동 20년』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통계로 본 노동 20년』은 고용, 임금, 근로자 생활, 노사관계 분야를 망라하는 40여개의 핵심주제를 노동통계를 중심으로 해당 전문가가 저술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의 주제를 선별하여 『노동리뷰』의 ‘통계로 본 노동 20년’ 시리즈를 통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상대빈곤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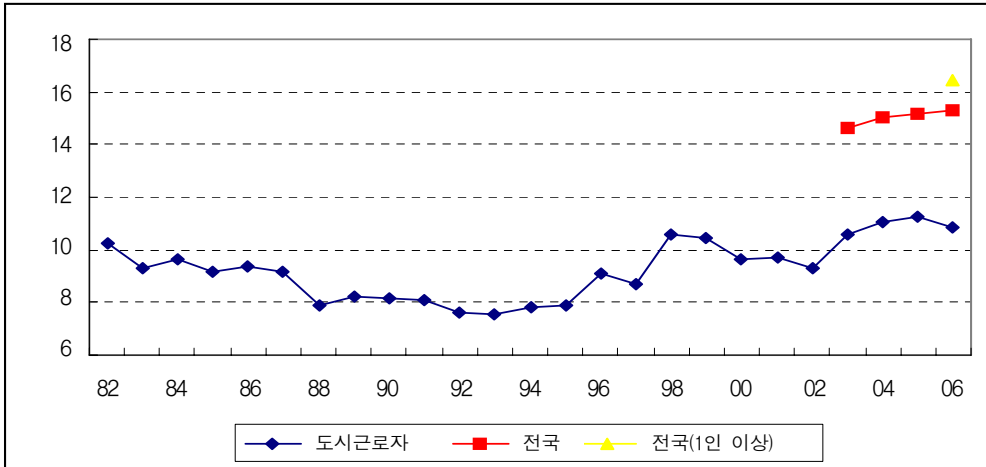
특정 시점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적 빈곤은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경우 소득변화가 없을 때에도 빈곤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가구균등화 지수(0.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개인의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상대빈곤율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동반한 소득분배 개선에 따라 199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전에 소폭 증가하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 크게 증가하여 1998년 10.6%까지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높은 11.2%를 기록하였다. 이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확산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들어 도시근로자의 상대빈곤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가구에서는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lbh@kli.re.kr), 반정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그림 1] 상대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



주: 가구 월소득을 월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함. 즉, 원자료에서 동일한 가구가 여러 차례 조사되어도 각각을 독립된 가구로 취급하였음.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 상대빈곤율의 국제비교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8.7%에서 2000년 13.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도 14.7%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의 대량실업 문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OECD가 작성한 회원국들의 2000년경 상대빈곤율 통계와 비교하면, 1996년 우리나라는 OECD 평균 10.4%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외환위기의 영향이 남아있던 200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2006년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수준의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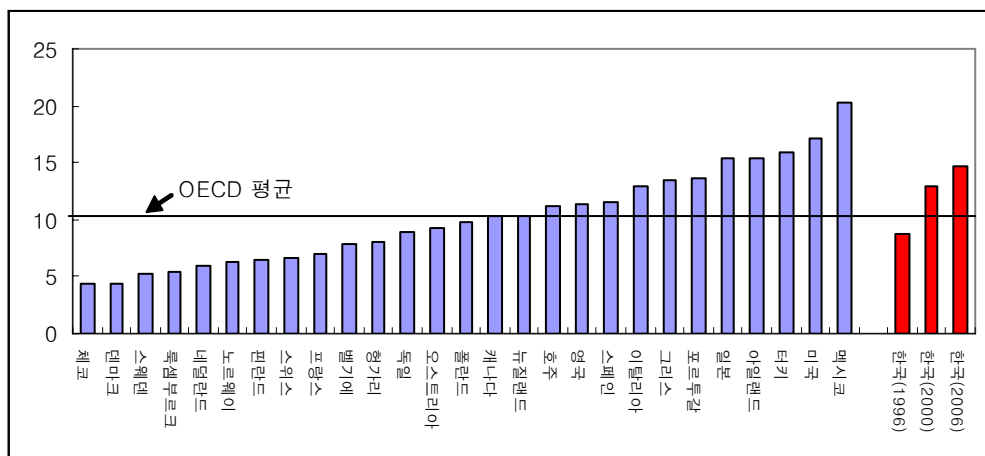
### ◆ 빈곤 진입과 탈출

빈곤의 동태적인 특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여 빈곤층은 소수의 계속빈곤층과 다수의 단기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용가능한 통계자료의 제한 때문에 분석시기가 외환위기 이후로 한정되어 있다.

2003~2005년 12분기의 빈곤 이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빈곤경험가구의 78.5%는 1년 이내에 빈곤을 탈출하며, 빈곤을 탈출한 가구의 73.8%는 1년 이내에 빈곤 상태에 재

[그림 2] 상대빈곤율의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



주: OECD 회원국은 2000년경 통계임.

국제비교를 위해 한국 통계는 1인 이상 전국가구(비농가 제외)의 연간소득을 사용함. 2006년의 경우 가구별로 월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소득으로 전환함.

자료: Förster M. and M. d'Ercole(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통계청(1996,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2006), 「가계조사」.

진입하고 있다. 이는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주로 빈곤선 주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빈곤화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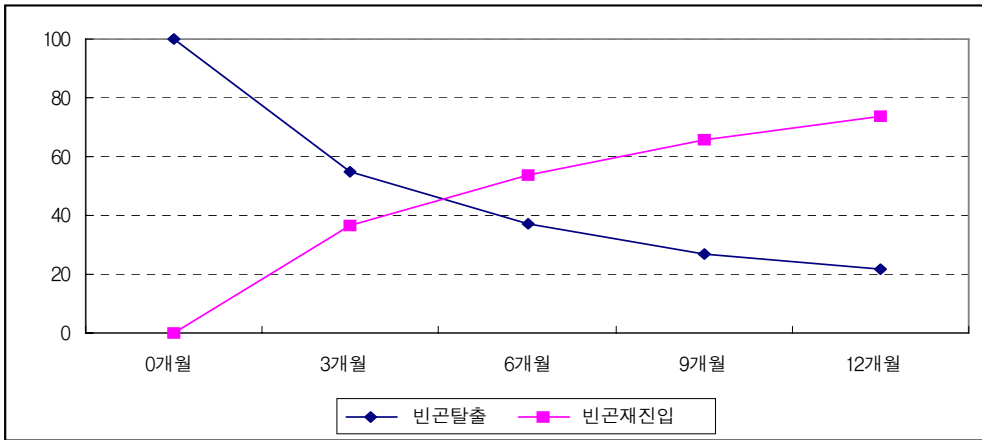
3년 동안의 빈곤의 경험횟수와 지속성을 기준으로 빈곤을 유형화하면, 전체 가구의 35.3%가 빈곤을 경험하여 빈곤 위험에 약 1/3의 가구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 경험가구의 구성을 보면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4.0%에 불과하지만,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가 16.0%,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가 15.3%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인 반면,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실직, 저임금·비정규 고용,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근로빈곤 문제의 대두

외환위기 이후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은 주로 실업의 결과로 이해되었으나, 실업 문제가 진정되었음에도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근로빈곤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근

[그림 3] 빈곤진입가구의 빈곤탈출률과 빈곤탈출가구의 빈곤재진입률

(단위 : %)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의 분기 패널자료」, 2003~2005(노대명·강신욱·이현주 외,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사람  
 입국·일자리위원회, 2006에서 인용).

로빈곤층을 빈곤가구내 취업자가 있는 가구 또는 근로능력자가 1인 이상 있는 가구 등으로 정의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개인별로 이루어진다는 점,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게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빈곤층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상태에 있는 구성원(the workable and working poor)’으로 정의하였다.

2006년에 균등화된 연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층은 15세 인구 가운데 14.4%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60%에 이른다. 특히 취업한 빈곤층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51.0%를 차지하여 미취업으로 인한 빈곤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낮은 질이 빈곤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가 취업빈곤층의 87.4%를 차지하여 저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이 안정적인 빈곤 탈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

〈표 1〉 근로빈곤의 구성(2006년, 개인 기준, 가처분소득)

(단위 : %)

	15세 이상 인구			
	전표본의 비율	빈곤층의 비율	근로빈곤층의 비율	취업빈곤층의 비율
비빈곤층	85.6			
빈곤층	14.4	(100.0)		
근로능력 빈곤층	8.6	( 59.9)	(100.0)	
취업 빈곤층	4.4	( 30.6)	( 51.0)	(100.0)
상용직	0.4	( 2.8)	( 4.6)	( 9.0)
임시직	1.2	( 8.2)	( 13.7)	( 26.8)
일용직	1.3	( 8.9)	( 14.8)	( 29.1)
고용주	0.2	( 1.1)	( 1.8)	( 3.6)
자영자	1.1	( 8.0)	( 13.3)	( 26.1)
무급가족종사자	0.2	( 1.7)	( 2.8)	( 5.4)
실업 빈곤층	0.5	( 3.5)	( 5.9)	
비경할 빈곤층	3.7	( 25.8)	( 43.1)	
근로무능력 빈곤층	5.8	( 40.1)		
전 체	100.0			

주: 가구소득은 각 가구별로 월소득을 합산하여 연간소득으로 전환함.  
 자료: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합 자료.